

그림 2 檢 索 結 果 (例)

0 03	(新)	03-05-02	03-05-05	03-05-08	03-05-11	03-05-14	03-05-17	03-05-20	03-05-23	03-05-26
		02-24-02	03-10-14	03-24-17	03-24-08	03-23-07	03-23-15	03-15-09	03-24-12	03-27-07
		03-26-04	03-30-10	03-38-11						
0 0611	(文武)	01-14-02	03-36-03	03-01-08	03-27-11	03-03-09	03-31-17	02-20-08	03-04-16	03-04-02
01 07 04	(新學)	01-18-02								
01 15	(米)	01-06-11	02-26-13	01-13-03	03-11-11	01-06-10	01-12-09			
01 04 20	(女學)	03-28-07	03-09-08	03-26-05	03-09-05	03-06-03	03-09-02	03-09-02	03-09-16	03-09-11
		03-25-06								
01 15	(表)	03-29-12	01-20-14	03-29-11	03-01-16	03-24-04	03-13-15	03-23-15	03-04-08	03-23-12
		03-02-03	03-18-06	03-17-07	02-23-09	01-21-11	03-20-03			
01 21	(附)	03-38-04	01-18-11	03-24-18	01-20-08	03-36-08	01-14-18	03-24-11	01-24-09	03-27-02
		03-13-05	01-27-11	03-22-08	01-18-03	03-27-014	03-20-08	03-29-11	01-13-05	03-24-11
		03-23-08	01-27-03	03-30-05	01-24-06	03-18-04	01-25-11			
01 21	(步)	03-25-15	01-11-14	03-27-08	01-19-16	03-16-12	01-17-17	03-22-08	03-13-02	03-12-14
		03-27-08	01-21-10	01-19-14	01-27-04	01-17-14	01-23-11	01-10-04	03-14-14	01-13-11
		01-10-04	01-12-01	01-10-01	01-13-11	01-10-07	01-13-01	01-10-02	01-10-08	01-10-01

新儒學思想의 몇가지 根本的 傾向 들이 中國 ‘士’ 階層의 自然觀에 미친 영향

——朱子의 예를 중심으로——

서울대 金 永 植

中國文明을 들이켜 볼 때 가지게 되는 가장 흥미있는 질문의 하나가 “중국에서는 왜 과학혁명이 일어나지 않았나?” 혹은 이보다 조금 완곡하게 “중국에서는 왜 獨自의로 근대과학이 발전되지 않았나?”하는 점이다. 최근에 와서 중국에도 오랜 세월을 두고 독자적인 과학적·기술적 지식이 존재했고 발전해 왔으며 적어도 12~13세기경까지는 서양에 비해 여러 면에서 훨씬 앞서 있었다는 것이 인식되면서 이 질문은

더욱 자주 반복됐다.

그간 많은 학자들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왔다. 그러나 이들 대답들은 대부분 중국 전통 사회 자체의 歷史的 狀況과는 관계없이, 서양에서 근대과학이 형성되는 데 기여한 요소들을 찾고 그것들이 중국에는 없었음을 지적하는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어 이들 학자들은 중국에서의 수학(기하학)적 방법, 실험적 방법, 論理的 推論法, 商人階級, 創造主의 개념, 直線的 時間 개념 등등의 缺如가 근대과학의 출현을 막았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들은 여러 다른 문화권의 自然에 관한 지식은 모두 서양에서 근대과학이 발전된 형태로만 근대과학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假定을 암암리에 內包하고 있다. 16~17세기 과학혁명기의 구체적인 역사적 상황과 분리되어서도 어느 문화권에서나 위의 요소들이 근대과학의 형성을 가져올 것이라는 것이다.

최근에 와서는 이같은 문제점의 인식이 주로 이유가 되어서 위의 질문자체에 대한 懷疑論——즉 “왜 중국에서 근대과학이 성립되지 못했나?”라는 질문이 잘못된 질문이라는 주장——이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회의론 역시 지나친 면을 포함하고 있다. 그 동안의 문제점은 위의 질문 자체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대답들에, 특히 그 대답들에 깔려 있는 가정에 있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위와 같은 잘못된 가정을 벗어나서 중국 전통사회 자체의 맥락에서 위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 보려는 시도는 중국의 전통과학, 그리고 보다 넓게는 중국 전통문화 전반에 관한 이해에 기여할 수가 있다. 특히 위의 질문을 보다 분명한 형태로 바꿔서 “왜 서양과학은 과학혁명을 거쳐 근대과학으로 발전해 나갔는데 중국에 있어서의 자연에 관한 지식은 다른 형태로 발전해 나갔는가?”라고 묻게 되면 假定을 제거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한편, 이렇게 했을 때의 연구의 대상은 당연히 중국 자체의 知的·社會的·制度的 여건들과 그것들이 중국의 과학에 미친 영향이 될테데, 그 중 특히 유익한 분야들이 科學에 입각한 官僚制度和 이들 官僚들을 배출한 주된 계층이었던 ‘士’ 계층의 新儒學에 바탕한 사상적 배경이다. 本發表는 이 중 後者에 대해, 즉 신유학사상의 몇가지 근본적 경향들이 중국 ‘士’ 계층의 자연관에 미친 영향에 대해 다루기로 한다.



新儒學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들 중의 하나가 ‘理’이다. 그런데 朱子를 비롯한 많은 신유학자들에게 있어서 이 ‘理’라는 개념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원리’나 ‘법칙’을 가리키지 않는다. 어떤 事物의 理는 그 사물을 이해하거나 분석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 사물이 존재할 수 있는 ‘원인’ 또는 ‘조건’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어떤 복잡한 사물의 ‘理’도 그 사물 자체를 통털어서 한꺼번에 가리킬 뿐, 그 사물에 내포된 간단한 원리나 그 사물이 따라야 할 기본적 법칙은 아닌 것이다.

이런 면에서 볼 때 朱子가 ‘理’를 연구하거나 분석하지 않고 단순한 言及만 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理’에 관해서 그가 묻는 질문들은 “그 사물의 ‘理’가 있는가?”같은 것이었고 그 ‘理’의 내용을 논의하는 일은 없었다. 그리고 관심이 이같이 ‘理’의 內容이 아니라 存在與否에 쏠리게 되면서 朱子의 후계자들이 묻는 질문들도 자연히 “「理」가 어디에 있는가?”, “어디서 「理」를 찾을 수 있는가?” 또는 “어떻게 「理」에 도달할 수 있는가?” 같은 것이었다. 결국 이런 이유에서 新儒學의 方法論의 핵심을 이루었던 ‘格物’이 비록 사물의 ‘理’를 그 대상으로 했지만 언제나 知的인 면과 倫理的인 면을 동시에 띠었고, 學問에의 熱中만이 아니라, ‘敬’, ‘靜’ 등의 상태에의 沈潛을 요구한 것이다.

신유학의 또 하나의 중요한 개념이 ‘氣’이다. 여러 신유학자들에 의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氣’로 이루어져 있고, 모든 현상은 ‘氣’의 作用에 의한 것이다. 그런데 그들의 自然觀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이 ‘氣’의 聚散·昇降·屈伸 등의 作用 또는 운동이 ‘氣’ 자체에 內在하는 본원적 성질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氣는 그러한 작용과 운동을 위해 外部의 原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氣’의 이런 특성 역시 신유학자들의 자연관에 영향을 미쳤다. 즉 그들은 어떤 현상을 일단 ‘氣’의 작용에 의해서라고만 얘기하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으로 생각했고, 그 작용의 원인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왜 氣의 어떤 특정한 작용이 어떤 특정한 현상으로 나타나느냐는 질문—그런 현상들과 그 원인들에 대해 훨씬 더 깊은 탐구를 불러 일으켰을—같은 것도 일어나지 않았다.

또 다른 예로서, 形而上—形而下의 구별이 있다. ‘理’, ‘道’, ‘仁’ 등과 같은 고상하고 추상적인 개념들이 前者, 그리고 구체적인 사물들이 後者에 속한다. 그런데 우리에게 흥미있는 점은 신유학자들이 이들 중 ‘形’이 없고 추상적인 前者는 어렵고, 따라서 탐구해 볼만한 것으로 중요시 한데 반해 ‘形’이 있고 구체적인 後者는 쉽고 뻔해서 굳이 탐구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자연현상이 대체로 後者

에 속해서 등한시된 반면 社會・倫理의 문제, 그리고 추상적인 철학의 문제가 前者에 속해 중요시된 것을 곧 수긍할 수 있다. 심지어는 朱子가 실제로 자연현상에 대해 얘기하고 있을 때도, 많은 경우 그의 흥미가 자연현상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자연현상에 관한 지식을 사용해서 어렵고 더 복잡한 社會・倫理・哲學의 문제를 논하려는 데에 있었던 것이다.

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現象世界의 實在을 강력히 옹호하는 新儒學의 입장이다. 본래부터 儒學의 특징이었던 이 입장이 현상세계를 부정하는 佛敎・道敎에 대한 反作用으로 신유학에서는 더욱 강력해졌던 것이다. 한편 이같은 실제 현상세계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空’, ‘無’, ‘無限’, ‘空間’ 등의 개념들에 대한 탐구를 힘들게 했다. 그러한 개념들은 공허하고 현상세계의 實在의 인식이나 그 속에서의 윤리적・사회적 문제들에 아무 도움도 안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실은 바로 이런 공허해 보이는 개념들에 대한 이론적・추상적 고찰이 자연현상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돕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바로 이같은 개념들에 대한 중세 서양에서의 계속된 논의가 과학혁명기를 통해 새로운 근대과학을 형성시키는데 큰 몫을 했다. 신유학자들의 경우에는 결국 현상세계의 實在에 대한 지나친 강조가 그 현상세계의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개념들에 대한 탐구를 어렵게 하는 역할을 한 것이다.

日帝에 의한 韓半島 開發 戰略批判

國土開發研究院 金 儀 遠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中國, 日本의 이른바 東洋三國은 19세기 후반까지도 西歐世界와는 높은 담을 쌓는 鎖國政策을 펴고 있었다. 西歐列強이 최초로 東洋에 밀어 닥친 것은 1840년의 英國에 의한 阿片戰爭이라 할 수 있다. 1842년에 北京은 英國軍에 의해 불바다가 되었다. 日本은 이 阿片

戰爭을 계기로 하여 西洋에 관해 研究하기 시작했고 1824년에 德川幕府가 반포했던 이른바 『異樣船打拂令』을 철회하는 機敏性을 발휘하였다.

日本은 1853년에 Perry提督이 開港을 要求하자 다음해인 1854년에 재빨리 開港하였으며 15년 후인 1868년에는 明治維新을 이룩하고 1876년에는 Perry제독이 日本에 취한 것과 같은 수법으로 우리나라에 開港을 要求했다. 이 당시 우리나라는 지척에서 일어난 阿片戰爭도 아무런 관심없이 江 건너 불보듯 했는가 하면 일본의 開港要求를 아무런 代案도 없이 「衛正斥邪」로 一貫하는 물지각의愚를 범하고 말았다.

아편전쟁을 겪은 中國이 近代化의 계기를 잡은 것은 이른바 「同治中興」을 이룩한 1864년의 일이다. 우리나라의 近代化 기점을 1884년 「甲申政變」으로 잡는다면 中國의 同治中興보다 22년 뒤졌고 日本의 明治維新보다는 18년 뒤의 일이다. 19세기 후반의 이 18년의 갭이 오늘날 우리나라와 日本間의 격차를 크게 벌려 놓은 결과가 되고 말았다.

日本의 韓半島에 대한 탐욕은 명치유신 직후의 소위 西郷隆盛에 의한 『征韓論』이 있고 1893년의 樺井藤吉에 의한 『大東合邦論』에 잘 나타나 있다. 日本은 1894년에는 海軍을 동원하여 우리나라 근해에 대한 測量을 마쳤다. 乙巳保護條約 1년전인 1904년에는 『對韓施設綱領』을 만들어 본격적인 한반도 支配體制를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綱領의 내용은 첫째 韓國의 모든 交通施設을 장악할 것, 둘째 韓國의 모든 通信施設을 장악할 것, 셋째 軍隊가 주둔해야 할 戰略用地에 대한 收用權을 확보할 것 등이었다. 이어 1905년에는 乙巳條約 체결직전에 「朝鮮水產調査」란 이름으로 島嶼와 海岸調査를 실시하여 그들이 확보할 據處物色을 끝낸 다음 보호조약을 맺었다.

日本은 이 不平等 보호조약이 5년간 계속되는 동안 실질적인 統治機構를 정비하고 外交權은 물론 財政權까지 완전히 장악하게 되었다.

1910년에 悲運의 韓日合併이 이루어지자 日本은 세가지 對韓統治方針을 수립했다. 첫째는 한국을 영원한 農業國家로 統治할 것, 둘째는 한국을 日本의 商品販賣市場으로 통치할 것, 셋째